

# 金文 ‘若’과 ‘若德’의 의미에 대한 考察\*

金信周\*\*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金文 ‘若’의 의미
  - III. ‘若德’의 의미에 대한 考察
    - 1. 金文 ‘若德’에 관한 制限說
    - 2. 《尚書》 중의 ‘若德’
    - 3. 金文 ‘若’의 지시대명사 用法
  - IV. 結論
- 

## I. 들어가는 말

‘若’은 갑골문과 金文에서 出現빈도가 비교적 높은 글자 중의 하나이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古 문자가 지니는 다의성은 때로 어휘 해석에도 영향을 주어 각기 다른 해석을 낳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 다룰 ‘若德’도 그런 어휘 중의 하나이다.

‘若德’은 金文에서는 중국 陝西省에서 출토된 서주 말기의 중요 기물인 毛公鼎 명문에 단 한차례 出現하는 어휘로, ‘若’의 의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若德’의 의미 해석에도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若德’에 대한 정확한 의미 考察을 위해 먼저 金文 중에 보이는 ‘若’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毛公鼎 명문의 ‘若德’의 정확한 의미한 의미가 무엇인지 窺어보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구체적으로 먼저 族徽문자나 인명 등 고유명사로 사용된 ‘若’을 제외한, 《殷周金文集成》<sup>1)</sup>과 《近出殷周金文集錄》<sup>2)</sup>에 출현한 모든 ‘若’字를 분석해보고, 의미항목을 기준으로 그 쓰임을 분류해보았다. 그 다음 금문과 전래문헌에 나타난 ‘若德’에 대한 제학설을 금문 ‘若’의 용법과 관련 지어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若德’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함은 물론, 금문 관련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若’의 의미항목들을 보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금문 ‘若’의 의미

금문의 ‘若’은 모두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의미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 1. 순조롭다, 순종하다

‘若’의 갑골문 초기 자형은 𠄎 (《殷墟文字甲編》205)로, 이 자형에 대한 해석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葉玉森의 견해이다. 葉玉森은 이 자형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sup>3)</sup>. 《爾雅·釋言》에 ‘若, 順也’라고 했는데, 이는 곧 ‘若’의 본뜻이다. 청동기 명문에서도 이 본뜻으로 사용된 ‘若’의 용례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1) 子子孫孫, 世世是若. 《集成》5.2675 郟王罍鼎 (자자손손 세세토록 순조로울 지어다.)

(2) 舍(今)舍(余)方壯, 智(知)天若否, 論(論)其德, 省(省)其行, 亡不(順)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 이하 《集成》이라고 약칭한다.

2)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이하 《近出》이라고 약칭한다.

3)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367쪽 참조.

道. 《集成》5.2840 中山王響鼎 (이제 내가 이미 장성하여 天道에 순종하는 것과 거스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의 덕을 논하고 그의 행실을 살피건대 天道에 거스르는 것이 없도다.)

(1) 邠王糧鼎의 '世世是若'은 簡大史申鼎(《集成》5.2732) 명문의 '子孫是若'과 같은 용례로, 《詩·小雅·大田》의 '曾孫是若', 《大雅·烝民》의 '天子是若', 《魯頌·閟宮》의 '魯侯是若'과 '萬民是若' 역시 이와 유사한 구문이다. 《毛傳》은 '若'을 '順'으로 해석했다. (2) 中山王響鼎의 '若否'는 毛公鼎(《集成》5.2841) 명문과 《大雅·烝民》: '邦國若否'에도 보이며, 《毛傳》은 '若否'를 '順否, 猶臧否, 謂善惡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 2. ...와 같다

'若'은 '如'와 通假되어서 '...와 같다'란 뜻으로 사용된다.

(1) 今我佳(唯)卽井(型)宙(稟)于玟(文)王正德, 若玟(文)王命(命)二三正, 今余佳(唯)令(命)女(汝)孟鬻(詔)爰(榮). 《集成》5.2837 大盂鼎 (지금 나는 文王의 正德을 본받고 계승하여 文王이 執政 大臣 두세 명을 임명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 또한 너 孟가 榮伯을 보좌하도록 명하노라.)

(2) 是少(小)心弊(恭)齊(齊), 靈力若虎……獻協而(爾)又(有)事, 卑(俾)若鍾(鐘)鼓. 《集成》1.272, 283, 284, 285 叔尸鐘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용맹함이 호랑이와 같으며……너의 屬官들을 화목하게 하여 鐘鼓처럼 하게 하라.)

청동기 명문에서 '若'이 '...와 같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예는 者濫鐘(《集成》1.193-198) 명문의 '若鬻(召)公壽, 若參壽'(召公처럼 장수하고, 參처럼 오래 살다)와 黻編鐘(《近出》1.51) 명문의 '其音……若華'(그 음이……꽃과 같다)에도 보인다. 《書·盤庚上》: "若網在綱, 有條而不紊"(그물이 버리에 붙어 있어야 조리가 있어 어지럽지 않은 것과 같다)의 '若'도 같은 용법이다.

### 3. 어기사

이 용법에 해당하는 ‘若’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 雩若二月, 戾(侯)見于宗周, 亡(愍)!……雩若(翌)日, 才(在)璧(辟)璽(雍). 《集成》11.6015 麥方尊 (2월에 邢侯가 宗周에 와서 왕을 알현하였는데, 실수가 없었도다!……다음 날에 辟雍에 계셨다.)  
 (2) 雩若翌日乙酉. 《集成》5.2839 小盂鼎 (다음 날 을유일에)

위와 같이 ‘雩’와 함께 쓰이는 ‘若’의 용법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若’을 ‘及’의 의미로 보아, ‘~때에 이르다’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雩’와 같은 어기사로 보는 것이다.

‘雩’는 문두에 쓰이는 어기사로, 전래문헌에서는 ‘粵’, ‘曰’, ‘越’로도 쓴다. 《書·召誥》편의 ‘若翼日乙卯也’에 보이는 ‘若’은 시간사 앞에 쓰였다는 점에서 금문에서의 용법과 유사해 보인다. 위의 두 금문 용례처럼 ‘若’이 어기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書·堯典》이나 《皐陶謨》편에 보이는 ‘曰若稽古’에 대해, 蔡沈은 ‘曰’, ‘粵’, ‘越’은 서로 통하며, 고문에서는 ‘粵’로 쓴다. ‘曰若’은 발어사이다. 《周書》의 ‘越若來三月’도 같은 예이다(曰、粵、越通. 古文作‘粵’. ‘曰若’者, 發語辭. 《周書》: ‘越若來三月’, 亦此例也.)<sup>4)</sup> ‘稽古’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若’을 ‘及’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과 맞지 않고, 《召誥》편의 ‘越若來三月’에서도 ‘若’을 ‘及’으로 해석한다면 ‘來’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용법의 ‘若’을 어기사 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 4. 명령을 따르다

- (1) 氏則卑(俾)□復令(命)曰: 若(諾)! 《集成》5.2838 召鼎 (氏가 이에 □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니 말하길: 분부를 따랐습니다.)

4) 蔡沈 《書集傳》(南京, 鳳凰出版社, 2010), 1쪽 참조.

'若'이 '諾'과 通假되어서 동의나 응낙의 의미를 나타낸다. 馬王堆漢墓帛書의 《戰國縱橫家書》十八: “太后曰: ‘敬若’. 年幾何矣?”(태후가 말하길: 좋습니니다. 몇 살입니까?)라는 구문이 《戰國策·趙策四》에서는 '敬諾'으로 쓰여 있다. 위의 召鼎 명문에서는 '명령을 따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이렇게, 이와 같이

3장 3절에서 따로 논하겠다.

### 6. 이

3장 3절에서 따로 논하겠다.

### 7. 2인칭 대명사

(1) 王曰: 孟, 若敬乃正(政), 勿饜(廢)朕令(命). 《集成》5.2837 大孟鼎  
(왕이 말씀하시길: 孟야, 너는 너의 직책을 신중히 이행하고, 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지어다.)

서주 시기의 관련 문헌 중에 '若'이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예는 드물게 보이며<sup>5)</sup>, 이 때문에 위 大孟鼎 명문의 '若'을 '順'의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sup>6)</sup>, 2인칭 대명사로 쓰인 '若'의 용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逸周書·祭公》편 '我亦維有若文祖周公暨列祖召公茲申.……我亦維有若祖

5) 周法高, 楊伯峻, 何樂士 등의 학자들은 제2인칭대명사로 쓰인 '若'은 갑골문 및 《書》, 《詩》에는 보이지 않으며, 금문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했고(《中國古代語法》[稱代編], 北京, 中華書局, 1990, 92쪽;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2003, 112쪽 참조), 張玉金 역시 이런 용법의 '若'은 《書·周書》와 《逸周書》에만 출현할 뿐, 서주 시기 다른 언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西周漢語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91쪽 참조).

6) 秦永龍 《西周金文選注》(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36쪽; 周寶宏 《西周青銅重器銘文集釋》(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7), 347쪽 참조.

祭公之執和周國，保乂王家.’(나 또한 너의 文祖 周公과 烈祖 召公의 이러한 훈계를 안다.……나 또한 너의 부친이신 祭公께서 주나라를 지키시고 화목케 하셨으며, 왕실을 보호하시고 안정시키신 것을 안다)에 보이는 ‘若’은 비교적 확실한 2인칭 대명사 용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기한 금문 중의 ‘若’을 2인칭 대명사 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 8. 赦免하다

(1) 隹(雖)又(有)死辜(罪), 及參(三)殛(世), 亡不(無)若(赦)……詒(辭)死辜(罪)之又(有)若(赦), 智(知)爲人臣之宜(義)施(也). 《集成》5.2840 中山王 響鼎 (비록 죽을죄를 지어 삼대까지 연루되더라도 모두 사면해주리라……죽을죄를 사면해주는 것을 사양하였으니, 신하의 도리를 아는구나.)

‘若’이 ‘赦’와 통가되어 ‘사면하다’, ‘용서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說文通訓定聲》에는 ‘蠶’가 ‘螿’과 같은 글자라고 하였는데<sup>7)</sup>, 이는 ‘若’과 ‘赦’가 통가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戰國시대 말기의 금문 자료인 兆域圖銅版(《集成》16. 10478) 명문에 ‘死亡(無)若’(죽어야 하고 용서하지 않으리라)이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여기의 ‘若’도 ‘赦’와 통가된다.

## 9. 그리고

(1) 心聖若慵(慮). 《集成》5.2750 上曾天子鼎 (마음과 생각이 통달했고 사려가 깊다.)

위의 ‘若’은 ‘而’와 같은 접속사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若’의 이러한 용법은 전래문헌에도 보이는데, 《書·金縢》: ‘予仁若考, 能多材多藝, 能事鬼神’에 대해 王引之는 王念孫의 말을 인용하여 ‘考’와 ‘巧’는 古字가 서로 통하고, ‘若’과 ‘而’는 음운이 서로 전환된다. ‘予仁若考’는 ‘予仁而巧’이다(考、巧古字

7) 朱駿聲 《說文通訓定聲》[上](臺北, 世界書局, 1985), 406쪽 참조. 또한, 《史記·田儼列傳》: “螿螿手則斬手, 螿足則斬足.”의 ‘螿’을 《漢書·田儼傳》에서는 ‘蠶’로 적고 있다. (王輝 《古文字通假字典》北京, 中華書局, 2008, 289쪽 참조)

通, 若、而言之轉. 予仁若考者, 予仁而巧也.)」라고 설명했다<sup>8)</sup>.

### Ⅲ. '若德'의 의미에 대한 고찰

#### 1. 금문 '若德'에 관한 제학설

앞서 살펴보았듯 금문에서의 '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에 근거하여 '若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이 있어왔다. 우선 毛公鼎 명문에 보이는 '若德'과 관련된 文例를 살펴보자.

余非亶(庸)又昏(聞), 女(汝)母(毋)敢妄(荒)寧(寧), 虔(夙)夕, 惠(惠)我一人, 馮(離)我邦小大猷, 母(毋)折威(緘), 告余先王若德, 用印(仰)卽(昭)皇天, 鬻(鬻)大命, 康能三(四)或(國), 俗(欲)我弗乍(作)先王憂。《集成》5.2841 毛公鼎 (나는 평범하거나 우둔하지 않으니, 너는 방종하거나 일시적인 안일을 꾀해서는 안 되고, 성심껏 아침저녁으로 나를 은혜롭게 하며,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정책을 지키도록 하라. 緘口無言하지 말고, 나에게 선왕의 若德을 아낌으로써 皇天의 뜻에 부합하여 天命을 계속 받들며, 사망의 모든 나라를 안정시키어 내가 선왕의 근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까지 '若德'에 대한 해석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若'을 '順'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順'은 '若'의 本義로서, 많은 학자들이 孔安國의 '若德'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若德'을 '順德'으로 풀이해 왔다. 《書·康誥》편 '弘于天若德, 裕乃身不廢在王命'<sup>9)</sup>에 보이는 '若德'을 《孔傳》에서는 '順德'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徐同柏·王國維·于省吾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毛公鼎 명문의 '若德' 역시 이 같은 뜻으로 설명했다<sup>10)</sup>.

8) 王引之 《經義述聞·尚書上》(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88쪽 참조.

9) 이에 대한 해석은 3장 2절에서 따로 논의할 것임.

10) 徐同柏 《續修四庫全書·史部·金石類·從古堂款識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401쪽; 王國維 《觀堂古今文考釋》; 《王國維遺書》(第6冊)(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毛公鼎銘考釋〉十; 于省吾 《雙劍謄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128쪽; 洪家義 《金文選注釋》(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8), 450쪽; 孫稚籬 〈毛

둘째, ‘若’을 ‘其’나 ‘之’와 같은 지시대명사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 해석을 주장한 학자들<sup>11)</sup>은 주로 王引之가 《書·召誥》의 ‘我亦惟茲二國命, 嗣若功’ (나는 오직 이 두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여 若功을 계승하겠습니다)에 대해 ‘若猶其也. 嗣其功, 嗣二國之功也’(若은 其와 같다. 嗣其功은 二國의 功을 계승한다는 뜻이다)라고 풀이한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sup>12)</sup>. 만약 ‘若’을 지시대명사로 보게 되면 毛公鼎 명문의 ‘告余先王若德’은 ‘선왕의 그 덕을 나에게 아뢰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검토는 ‘若’의 지시대명사 용법과 관련지어서 3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셋째, ‘若’을 구조조사로 보는 견해이다. 郭沫若은 ‘若’자는 과거 順으로 많이 풀이되었으나, 여기서는 마땅히 其로 해석해야 한다.……이 ‘告余先王若德’은 곧 선왕의 덕을 나에게 아뢰어라란 뜻이다. 만약 ‘順德’으로 풀이한다면, 그 선왕에게는 ‘順德’도 있고, ‘敗德’도 있다는 비난의 뜻이 되며, 그 표현이 극히 불경스러워지므로, 이는 원래 명문의 뜻이 아니다.’라며, ‘若’을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연결해주는 구조조사의 용법으로 보았다<sup>13)</sup>. 그런데 郭沫若은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若’을 지시대명사로 본 王念孫의 〈召誥〉편 해석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의 설명과 다소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표적인 금문 어휘 사전인 《金文常用字典》이나 《簡明金文詞典》도 ‘若德’의 ‘若’을 구조조사로 간주하고, 이는 고대 중국어에서 종속관계를 나타내는데 쓰였던 ‘之’나 ‘其’와 같은 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若’의 용례가 청동기 명문 자료와 西周 시기의 다른 전래문

公鼎銘今譯): 《容庚先生百年誕辰紀念文集》(韶關, 廣東人民出版社, 1998), 290쪽; 白川靜, 曹兆蘭 譯 《金文通釋選譯》(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0), 197-198쪽; 王輝 《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265쪽 참조.

- 11)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北京, 文物出版社, 1988), 318쪽; 秦永龍 《西周金文選注》(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174쪽; 朴元圭, 崔南圭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서울, 신아사, 2009), 365쪽 참조.
- 12) 王引之 《經傳釋詞》(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卷七·十四.
- 13)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攷釋》[下冊]: ‘若字舊多訓爲順, 今按當訓爲其, ……今此‘告余先王若德’亦謂以先王之德告余. 若說爲順德, 則是斥其先王有順德, 亦有敗德, 語殊不恭, 非原銘之意.’(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136-137쪽.
- 14) 陳初生 《金文常用字典》(高雄, 復文書局出版社, 1992), 65쪽 참조; 王文耀 《簡明金文詞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183쪽 참조.



헌 자료에서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잠시 논외로 하겠다.

'若'을 '順'의 의미로 해석하든, 지시대명사로 풀이하든 毛公鼎 명문의 내용과 연결지어볼 때 기본적으로 해석상의 막힘은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우선 선진문헌 중에 출현하는 '若德'의 의미를 알아본 후, 청동기 명문 중의 '若'의 지시대명사 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若德'의 가장 타당한 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 2. 《尚書》 중의 '若德'

先秦典籍중에서 '若德'과 관련된 자료는 《尚書》에 보이고 있다<sup>15)</sup>.

- (1) 《書·高宗彤日》: 民有不若德, 不聽罪, 天既孚命, 正厥德.
- (2) 《書·酒誥》: 茲亦惟天若元德, 永不忘在王家.
- (3) 《書·康誥》: 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

(1)《書·高宗彤日》의 '若德'에서 주목할 점은 앞에 부정부사 '不'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孔傳》에서는 이 부분을 '不順德, 言無義, 不服罪, 不改修'(不順德은 정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不服罪는 잘못을 바르게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不若德'과 '不聽罪'는 문맥상 의미와 어법 구조로 보았을 때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聽'이 '따르다' 혹은 '받아들이다'란 의미의 동사이므로, '若德'도 '聽罪'와 같이 술목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여기서의 '若'은 '순종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民有不若德, 不聽罪, 天既孚命, 正厥德'은 '백성들이 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이 명을 내려 그 덕을 바로잡으셨다'로 풀이할 수 있다.

그 다음, 《尚書》의 편제와 순서상 〈康誥〉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2)〈酒誥〉편의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 위 〈酒誥〉편 인용부분의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天若元德'의 해석

15) 다른 先秦文獻중에서도 '若德'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는 '若'이 가정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인 예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孔傳》에서는 ‘亦惟天順其大德而佑之’(또한 하늘이 큰 덕을 배풀어 보우하시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일본학자 池田末利는 중국의 여러 고증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곳의 어법은 〈康誥〉편의 ‘宏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과 유사하다. 楊筠如는 ‘天若元德’의 ‘若’과 ‘元’을 모두 ‘善’으로 해석했다.……楊向時は ‘天道’와 ‘元德’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康誥〉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문의 용례에 비춰 보면 ‘若’은 ‘之’와 같은 단어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늘의 元德’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 德은 ‘惠’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この語法は〈康誥〉の‘宏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と類似している. ‘天若元德’は楊筠如は‘若’‘元’ともに‘善’と解する.……楊向時は天道と元德とみる. しかし, 〈康誥〉で述べたように, 金文の用例に徴して‘若’は‘之’と語詞に讀む. すると‘天の元德’となるが, この德は‘惠’の意に解すべきである).<sup>16)</sup>

위의 설명을 통해 池田末利는 ‘若’의 의미를 郭沫若처럼 구조조사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으나, 毛公鼎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若’이 구조조사로 쓰인 문헌상의 다른 용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1)〈高宗彤日〉편의 ‘不若德’의 의미와 ‘若元德’의 어법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若’은 ‘順’의 뜻으로 풀이하고, ‘元德’은 ‘大德’ 혹은 ‘善德’의 의미이므로, ‘若元德’의 ‘若元’을 유의어로 구성된 관형어로 볼 수도 있다. 금문에는 유의어를 중복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어휘 구조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魯福’(《集成》10.5410啓卣)과 ‘多福’(《集成》1.238-1.244虢叔旅鐘)을 합쳐 ‘魯多福’(《集成》1.145-1.148士父鐘)이라 하기도 하고, ‘大福’(《集成》1.263秦公鐘)과 ‘魯福’을 합쳐 ‘大魯福’(《集成》1.188, 1.190邠其鐘)이라 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若元德’은 ‘若德’과 ‘元德’이 합쳐진 어휘로도 볼 수 있으며, ‘天若元德’은 毛公鼎 명문의 ‘若德’ 앞에 ‘先王’이라는 소유격이 붙은 것과 동일한 구조로 보아, ‘하늘의 아름답고 크신 덕’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酒誥〉편의 인용문은 ‘이것은 또한

16) 池田末利 《尚書》[全釋漢文大系 第十一卷](東京, 集英社, 1982), 320쪽.

하늘의 아름답고 크신 덕으로, 영원히 周 왕실에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영원히 관직에 등용될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3)《書·康誥》의 '弘于天若德裕乃身不廢在王命'에는 여러 가지 독법이 존재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끊어 읽기 방법이 있다.

- (a) 弘于天, 若德, 裕乃身, 不廢在王命<sup>17)</sup>.
- (b) 弘于天若德, 裕乃身, 不廢在王命<sup>18)</sup>.
- (c) 弘于天, 若德裕乃身, 不廢在王命<sup>19)</sup>.
- (d) 弘于天若, 德裕乃身, 不廢在王命<sup>20)</sup>.

《孔傳》은 〈康誥〉편의 이 부분에 대해 '大于天, 爲順德, 則不見廢, 常在王命(하늘을 잘 섬기고 順德을 행하면 과직당하지 않고 늘 왕명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孫星衍은 (a)와 같이 읽고, '若德'을 '順于德'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이 구문을 인용한 《荀子·富國》편의 楊倞注를 따른 것이다.

(b)와 같은 독법을 따르는 학자들은 주로 〈酒誥〉편의 '天若元德'과 毛公鼎 명문의 '告于先王若德'을 근거로 '德'에서 끊어 읽어야 하며, 《荀子·富國》편에서 '弘覆乎天若'으로 읽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屈萬里는 (c)와 같이 끊어 읽고 있으나, '若'을 가정관계 접속사로 보아 '만약 너에게 덕이 충분히 있다면, 王命에 의해 과직당하지 않을 것이다(若汝身能富饒於德, 則不爲王命所罷黜也)'라고 해석하고 있다.

혹은 (d)와 같이 '天若'을 갑골문의 '帝若'과 같다고 보고, '하늘의 뜻을 發揚하고 스스로 덕행을 실천한다면 天命을 계승할 것이다(弘揚了上帝的旨意, 自己實行德政, 我們統治天下的大命就不會被廢棄了)'라고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

17) 孫星衍 《尚書今古文注疏》(北京, 中華書局, 2004), 361쪽 참조.  
 18) 顧頡剛, 劉起鈞 《尚書校釋譯論》(北京, 中華書局, 2005), 1312쪽; 于省吾 《雙劍謄尚書新證》(臺北, 崑高書社, 1985), 126쪽; 楊筠如 《尚書叢詁》(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5), 260쪽 참조.  
 19) 屈萬里 《尚書集釋》(臺北, 聯經出版社, 1994), 486쪽 참조.  
 20) 李民, 王健 《尚書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260쪽 참조.

이상 각종 끊어 읽기에 따른 의미와 〈酒誥〉편의 독법을 참고해봤을 때, 필자는 (b)와 같이 ‘弘于天若德, 裕乃身, 不廢在王命’으로 끊어 읽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酒誥〉편의 ‘天若元德’과 마찬가지로 ‘天若德’은 하늘의 順德 혹은 善德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康誥〉편의 이 구문은 ‘하늘의 若德을 힘써 선양하고 (이 若德이) 너의 몸에(너에게) 너덕해야(즉, 이 若德을 네가 실행해야) 왕에게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관직에 계속 등용될 수 있을 것이다)’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尙書》에 출현한 ‘若德’과 관련된 여러 해석들을 비교해보았다. 종합해보면, ‘若德’은 경우에 따라 ‘德을 따르다’ 혹은 ‘德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의 술목구조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관형어+피수식어(체언)’ 수식구조로서 ‘順德’ 혹은 ‘善德’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3. 금문 ‘若’의 지시대명사 용법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은 ‘若德’의 ‘若’을 ‘其’나 ‘之’와 같은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주요 근거가 된 것은 王引之의 《書·召誥》: ‘我亦惟茲二國命, 嗣若功’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렇다면, 금문의 ‘若’에도 이러한 용법이 존재할까? 만약 존재한다면, 毛公鼎의 ‘若德’을 ‘其德’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 것이다. 일단 필자는 《集成》과 《近出》에 출현한 모든 ‘若’자의 용법을 분석한 뒤,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용례들을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금문에 보이는 지시대명사 용법의 ‘若’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만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금문에 자주 보이는 ‘某若曰’과 같은 구문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中山王響方壺 명문 중의 ‘允筮若言’에서이다. 우선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某若曰’는 거의 대부분 ‘王若曰’의 형태로 쓰이고 있으며, 금문뿐만 아니라 갑골문과 《尙書》 및 《逸周書》에도 자주 출현하는 고정격식 중의 하나이다. 《集成》과 《近出》에 출현한 ‘某若曰’의 용례는 모두 24개(同文異范 제외)로, 그 중 두 개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王若曰’의 형태를 띠고 있다.

(1) 甲(叔)氏若曰：逆，乃且(祖)考許(?)政于公室，今余賜女(汝)干五，錫戈彤彤(綏). 《集成》1. 61逆鐘 (叔氏が 이렇게 말씀하셨다: 逆아, 너의 조상이 公室(제후의 집)을 잘 섬기어 이제 내가 너에게 방패 다섯 개와 붉은 술이 달린 창을 하사하노라.)

(2) 白(伯)夬父若曰：師馱，乃且(祖)考又(有)斿(功)于我家，女(汝)有佳(雖)小子，余令女(汝)死(尸)我家. 《集成》8.4311師馱鬲 (伯夬父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師馱아, 너의 조상은 우리 가문에 공훈이 있으며, 너는 비록 젊으나,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일을 관장하도록 명하노라.)

(3) 王若曰：克，昔余既令女(汝)出內(納)朕令(命)，今余佳(唯)鬻(鬻)乃令(命). 《集成》5. 2836大克鼎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克아, 예전에 나는 이미 네가 나의 명령을 전달하도록 명령했었는데, 지금 나는 너를 (그 관직에) 다시 임명하노라.)

(4) 王若曰：師克，不(丕)顯文、武，膺受大令(命)，匍有四方. 《近出》2.507 師克鬲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師克아, 위대한신 文王과 武王께서는 天命을 받으시고 천하를 치리하셨다.)

위와 같은 '某若曰'에 쓰인 '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략 네 가지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馬融의 '順說'; 둘째, 于省棼 등의 '如此說'<sup>21)</sup>; 셋째, 董作賓의 '書說'<sup>22)</sup>; 넷째, 王占奎의 '神意說'<sup>23)</sup>인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于省棼의 견해로, 그는 '王若曰'의 '若'은 '如此'로 해석되는 지시대명사이며, 이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陳夢家 역시 '王若曰'의 뒷부분은 王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서, '王如此說'의 의미이며, 이는 史官이 王의 冊命 내용을 代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sup>24)</sup>.

청동기 명문에서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쓰인 '若' 중에서 '某若曰'의 형식을 제외한 다른 형식은 東周 시기의 中山王響方壺 명문에 보인다.

21) 于省棼 〈“王若曰”釋義〉: 《中國語文》1966년 제2기, 147-149, 136쪽 참조.

22) 董作賓 〈王若曰古義〉: 《說文月刊》[合刊本] 제4권, 1944, 327-333쪽 참조.

23) 王占奎 〈“王若曰”不當解作“王如此說”〉: 《周秦文化研究》(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8), 359-377쪽 참조.

24) 陳夢家 《尚書通論》: '冊命既是預先書就的, 在策命時由史官授于王而王授于宣命的史官誦讀之, ……“王若曰”以下的命辭乃是王的說話, 其中代名詞爲“余”乃王所自稱, ……“王若曰”者王如此說. (臺北, 仰哲出版社, 1987), 159쪽.

(5) 於(烏)庠(乎), 允(哉)若言, 明(跋)之于壺而皆(時)觀焉. 《集成》1  
5. 9735 中山王響方壺 (아! 이 말이 참으로 좋구나! 나는 (이 말을) 壺에 확실히 새겨 시시대때로 볼 것이다)

위 명문의 문법 구조를 살펴보면, 이곳의 '若'은 '王若曰'과는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若言'에서 '若'은 '言'을 수식해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王若曰'의 '若'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

이처럼, 청동기 명문에서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쓰인 '若'은 단 하나의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如此'(이처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其'나 '之'와 같은 지시대명사 용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郭錫良은 고대 중국어에서 지시대명사로 쓰인 '若'의 의미와 문법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楊樹達 선생은 《高等國文法》에서 '爾'·'若'·'然' 이 세 지시대명사를 '如此'의 의미 항목 아래에 두었는데, '此', '是', '斯'와는 구별이 된다.……王力 선생 역시 《中國語法理論》에서 '爾', '若'은 현대중국어의 '這樣', '這麼着' 혹은 '那樣', '那麼着'에 상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의견은 정확하다.……'爾'와 '若'은 선진 시기에 지시대명사로든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지시대명사로 사용될 경우, '爾'는 주로 목적어로 쓰였고, '若'은 관형어로만 사용되었다. 楊樹達 선생이 지적했듯이, '爾'와 '若'은 모두 '如此' 혹은 '如是'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즉 用言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이 세 어휘는 체언의 성질을 띠는 지시대명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爾' '若' '然'三個指示代詞, 楊樹達先生的《高等國文法》把它們歸在'如此'一義的下面, 與'此' '是' '斯'有別.……王力先生在《中國語法理論》中也認為'爾' '若'相當於現代漢語的'這樣' '這麼着' 혹은 '那樣' '那麼着'. 他們的意思是對的.……可見, '爾' '若'在先秦很少用作指示代詞; 用作指示代詞時, '爾'多用作賓語, '若'只作定語. 正如楊樹達先生指出的, '爾' '若'都可以理解為'如此'或'如是', 即帶謂詞性.……這三個詞與體詞性的指示代詞有著明顯的區別).<sup>25)</sup>

張玉金 또한 西周 시기의 여러 문헌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전 학자들의 학술 비교를 통해 '若'은 '如此' 혹은 '這樣'의 의미를 나타내는 用言性 近稱대명

25) 郭錫良 〈試論上古漢語指示代詞的體系〉: 《漢語史論集》(北京, 商務印書館, 1997), 81-82쪽 참조.

사로서, 서주 시기 언어 자료에서는 부사어로만 사용되었고, '此'와 같은 體言性 지시대명사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遠稱대명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26)</sup>.

앞서 검토했던 청동기 명문 자료에 근거해서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쓰인 '若'의 성질을 추론해보면, 서주 시기에는 '如此'를 뜻하는 부사어로, 동주 시기에는 '此'를 뜻하는 관형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若'의 특징에 근거해볼 때 서주 말기의 毛公鼎 명문에 출현한 '若德'의 '若'을 '其'나 '之'와 같은 遠稱대명사로 보는 것은 당시의 용법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中山王響方壺 명문에 보이는 '若'의 쓰임을 근거로 '若德'을 '此德'(이덕)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若德' 앞에 '先王'이 쓰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先王의 德이란 즉 선왕 시기에 널리 宣揚되었던 德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德'이 지시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다면 시간적 거리로 보아 遠稱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보듯, 해당 시기 '若'의 지시대명사는 근칭대명사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若'을 '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 또한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못하다.

####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문에 보이는 '若'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의미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순조롭다, 순중하다, (2) ...와 같다, (3) 여기서, (4) 명령을 따르다, (5) 이렇게, 이와 같이, (6) 이, (7) 2인칭 대명사, (8) 赦免하다,

26) 張玉金 《西周漢語代詞研究》: 「在西周金文、《商書》和《逸周書》中都見到. 這種'若', 一般都認爲是'如此'、'這樣'的意思, 所以是近指代詞; 在西周漢語中, 只作狀語, 所以是謂詞性代詞. ……'若'屬於近指代詞的大類, 但跟'此'等名詞性代詞不同, 它是謂詞性的近指代詞. ……'若'都是'如此'、'這樣'的意思, 所以不能是遠指.」(北京, 中華書局, 2006), 277-278쪽.

(9) 그리고, 이 중에서 (7)-(9)의 몇 가지 의미항목은 상용 금문 사전인 《金文常用字典》이나 《簡明金文詞典》에 누락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毛公鼎 명문에 보이는 '若德'의 해석에 대한 논점은 '若'을 이 글자의 本義인 '順'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德'을 수식해주는 遠稱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먼저 《尙書》의 쓰임에 비추어볼 때, '若德'은 경우에 따라 술목구조로 볼 수도 있고, '관형어+피수식어(체언)'의 구조로도 볼 수 있다. 또, 금문 '若'의 지시대명사 용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단 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5)번의 用言性 지시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6)번과 같은 근칭대명사 또한 문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若德'의 '若'이 지시대명사로 쓰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종합해보면, 《尙書》 혹은 금문에 보이는 '若德'은 '順德'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若'을 遠稱 지시대명사로 해석하는데 근거가 되었던 《書·召誥》편 '我亦惟茲二國命, 嗣若功'에 대한 王引之의 해석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27)</sup>.

### 【參考文獻】

- (宋) 蔡沈 《書集傳》 南京, 鳳凰出版社, 2010  
 (清) 孫星衍 《尙書今古文注疏》 北京, 中華書局, 2004  
 (清) 王引之 《經義述聞》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清) 王引之 《經傳釋詞》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清) 皮錫瑞 《今文尙書考證》 北京, 中華書局, 1989  
 高明 《古文字類編》 臺北, 大通書局, 1986  
 顧頡剛, 劉起鈞 《尙書校釋譯論》 北京, 中華書局, 2005

27) 張玉金은 〈召誥〉편의 '我亦惟茲二國命, 嗣若功'의 '若'에 대해 원래는 제2인칭대명사이지만, 제3인칭 대명사로 활용되었으며, 복수를 나타낸다고 보았는데(《西周漢語代詞研究》, 92쪽, 98쪽 참조). 〈召誥〉편이 成王에게 하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二國'은 夏나라와 殷나라를 가리킴을 생각해 볼 때,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下冊〕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 郭錫良 〈試論上古漢語指示代詞的體系〉: 《漢語史論集》北京, 商務印書館, 1997
- 董作賓 〈王若曰古義〉: 《說文月刊》〔合刊本〕제4권, 1944
- 劉雨, 盧岩 編 《近出殷周金文集錄》北京, 中華書局, 2002
-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四〕,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朴元圭, 崔南圭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서울, 신아사, 2009
- 白川靜, 曹兆蘭 譯 《金文通釋選譯》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0
- 孫敬明, 何琳儀, 黃錫全 〈山東臨朐新出銅器銘文攷釋及有關問題〉: 《古文字論叢》臺北, 藝文印書館, 1999
- 孫稚雛 〈毛公鼎銘今譯〉: 《容庚先生百年誕辰紀念文集》韶關, 廣東人民出版社, 1998
- 楊筠如 《尚書覈詁》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5
-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北京, 語文出版社, 2003
- 楊樹達 《詞詮》北京, 中華書局, 1978
- 王文耀 《簡明金文詞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8
- 王占奎 〈“王若曰”不當解作“王如此說”〉: 《周秦文化研究》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8
- 王輝 《古文字通假字典》北京, 中華書局, 2008
- 王輝 《商周金文》北京, 文物出版社, 2006
- 于省吾 〈“王若曰”釋義〉: 《中國語文》1966년 제2기
- 于省吾 《雙劍謄吉金文選》北京, 中華書局, 1998
- 于省吾 《雙劍謄尚書新證》臺北, 崧高書社, 1985
-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 張玉金 《西周漢語代詞研究》北京, 中華書局, 2006
- 張玉金 《西周漢語語法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稱代編〕北京, 中華書局, 1990
- 周寶宏 《西周青銅重器銘文集釋》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
- 池田末利 《尚書》〔全釋漢文大系 第十一卷〕東京, 集英社, 1982
- 陳夢家 《尚書通論》臺北, 仰哲出版社, 1987
- 秦永龍 《西周金文選注》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 陳初生 《金文常用字典》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2
- 馮其庸, 鄧安生 《通假字彙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洪家義 《金文選注釋》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88

### 【中文提要】

本文對金文‘若’和‘若德’進行研究。歷來對毛公鼎銘文的‘若德’有三種解釋：一是將‘若’訓為‘順義’，‘若德’即‘順德’；二是將‘若’視為指示代詞，即‘其’義，其主要依據是王引之對《書·召誥》：‘我亦惟茲二國命，嗣若功’的解釋；三是將‘若’看做結構助詞。而第三種說法目前缺乏有力證據，在此姑且不論。

通過全面的考察，我們首先整理出金文‘若’字的九條義項。其義如下：(一) 順；(二) 如，像；(三) 語氣詞；(四) 諾；(五) 如此；(六) 此；(七) 第二人稱代詞；(八) 赦免；(九) 而。其中從(七)到(九)的三條義項可以填補《金文常用字典》或《簡明金文詞典》等常用金文詞典的空白。

其次，對《尚書》中所見的‘若德’進行分析，可知‘若德’既可看做‘述賓結構’，又可視為‘定語+中心語’的偏正結構。我們考慮到金文‘若’的指示代詞用法，名詞性的遠指代詞(‘其’)的用法不見，謂語性代詞(‘如此’)和名詞性的近指代詞的用法(‘此’)亦皆不符合銘文的意義，故‘若’用為指示代詞的可能性較少。

總而言之，將‘若德’訓為‘順德’較為妥當，王引之對《召誥》篇的解釋恐有待考之處。

### 【主題語】

古文字, 金文, 若, 若德, 指示代詞

투고일: 2010. 11. 11 / 심사일: 2010. 11. 20~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5